# 외식업계 '월드컵 특수' 모처럼 웃었다

## 충장로·수완지구 등 대형 스크린 설치된 호프집 3배 북적
## 치킨 매출 70% 급증…편의점 주류·마른 안주 매출도 2배

지난 23일 밤 자정께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치킨전문점이 축구경기와 함께 야식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둔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치킨전문점은 밤 11시가 넘어가자 하나 둘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각 테이블마다 TV가 설치돼 있고 매장 가운데 대형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축구경기를 보기 좋은 구조다. 이 때문인지 오전 일찍이 예약을 해둔 손님들도 있었고, 자정이 되면서는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게가 붐볐다.

이 치킨집 사장은 "지난 스웨덴전 때는 '월드컵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멕시코전은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며 "테이블이 없어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평소보다 매출이 3배는 더 늘었다"고 말했다.

광산구 수완동의 또 다른 호프집도 기대치 않고 있던 월드컵 특수에 매출을 끌어올렸다. 대형TV와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프로야구 팬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23일 저녁 KIA타이거즈 경기부터 24일 새벽 멕시코전까지 이어지면서 하루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모처럼만에 호황이라는 게 호프집 사장의 설명이다.

'썰렁한 월드컵'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전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지만 지역 외식업계와 편의점 등은 '깜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전과 달리 주말 야간시간에 경기가 열렸던 게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시며 새벽경기를 즐겨도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장로와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지역 주요 상권과 야식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편의점과 외식업계에 따르면 편의점CU(씨유)는 멕시코전이 열린 2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요 상품의 매출이 전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와 소주가 전주보다 2.5배 이상 매출이 늘었고 냉장 즉석식과 육가공류, 마른 안주류 매출도 1.3배가량 증가했다.

GS25 역시 같은 기간 전국 점포에서 맥주(287%), 마른 안주류(169%), 간편 먹거리(107%), 냉동식품(87.6%) 아이스크림(82.6%), 생수(49.3%) 등 주요 상품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2배 이상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맥주(100%), 냉장식품(61.5%), 냉동식품(79.2%) 안주류(67%), 스낵 과자류(62%) 등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야식의 대표 메뉴이자 축구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 '치킨'도 매출이 크게 뛰었다.

지역 토종 프랜차이즈 '네고치킨'은 광주지역 가맹점들의 23일 매출이 평균 70~100% 상당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역시 매출이 평소 주말 판매보다 70% 늘었다.

광주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스웨덴전 패배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역 업계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지 않았던 분위기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응원을 가 관심이 높아진데다,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 경기가 주말에 잡히면서 깜짝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

# 한-러 전력망 연계·천연자원 공동개발

## 한전-로세티 MOU…동북아 청정에너지 확대 기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과 러시아 로세티(사장 파벨 루빈스키)는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러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는 한-러 간 전력계통을 연계하고 러시아 천연자원을공동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양국 간 전력망 연계에 대해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날 MOU는 배전망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연구도 포함하고 있어 한전의 선진 배전망 기술과 노하우를 러시아에 전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전력망 연계는 금번 MOU체결로 인한 공동연구로 전력연계의 기술성·경제성이 입증된다면 한-중 연계사업과 함께 한-러 연계사업도 탄력을 받으며, 동북아의 청정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중국 SGCC, GEIDCO와 한-중 전력연계 사업개발을 위한 MOA를 체결 했으며 , 현재 한-중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전력연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 전국 확대

## 내달 20일부터 광주~울산·광주~대구 등 12개 증편

고급 버스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확대, 운행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버스 업계는 광주~울산, 광주~대구, 광주~동서울 등 전국 12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 다음달 20일부터 운행한다. 기존 운행 구간까지 포함하면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노선은 모두 26개로 늘어나게 됐다.

신규 노선으로는 광주~울산(3만7700원·1일 2회), 광주~대구(2만5700원·1일 3회), 광주~동서울(3만6600원·1일 4회) 구간이 포함됐다.

서울~순천(3만7100원)은 하루 5회에서 8회로, 서울~여수(4만원) 구간은 4회에서 6회로 운행 횟수를 늘렸다.

프리미엄 버스 요금은 우등버스보다 요금이 1.3배 높지만 KTX 요금과 비교하면 23%가량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주~동서울 간 KTX 요금은 4만6800원이지만 프리미엄 버스요금은 3만6600원을 내면 된다.

프리미엄 버스는 160도까지 펴지는 좌석과 옆좌석 가림막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도 확보해주는 고급 버스로, 전 좌석에 개별 모니터가 설치돼 영화와 게임, 음악도 즐길 수 있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보장치, 차량자세 제어장치 등을 기본 장착하고 차량 내 모든 설비에 방염 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무사고 운전 기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한은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

광주·전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는 체험학습을 통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오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무박 3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진행된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812회)

|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1 | 3 | 12 | 14 | 16 | 43 | 10 |

| 등위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2,947,954,750 | 6 |
| 2 |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 43,3512,276 | 68 |
| 3 | 5개 숫자일치 | 1,491,880 | 1,976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100,498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1,693,074 |

# '창립 50돌' 광주은행, 임직원 가족 초청 한마당 잔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은행 본점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1500여명을 초대해 창립 50주년 기념 'Joy & Fun DAY'를 개최했다. 〈사진〉

'Joy & Fun DAY'는 임직원 및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워라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 5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박물관 관람과 체험용 통장·화폐를 이용한 임직원 자녀들의 은행 체험을 통해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취미활동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히든스타' 코너에서는 색다른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하기도 하였고, 샌드아트와 마임쇼 공연 외에도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로 과학강의를 펼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학습으로 꾸며졌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일하기 좋은 직장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창립 50주년을 맞아 'Joy & Fun DAY'를 통해 직원들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워라밸 문화를 선도하여 지역 기업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 〈새얼굴〉

#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최우선"

## 이 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5일 취임하는 이정(55·사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자체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이 본부장은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한국은행에 입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역, 조사국 외화자금국 과장, 국제국 부국장,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 부장 등을 지냈다.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들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